

2020지방직 제1회 9급 국어 B책형 재미있고 아주 자세한 해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1)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30**) **중의적인 문장 완벽 정리** >

‘역전앞’과 마찬가지로 ‘피해(被害)를 당하다’에도 의미의 중복이 나타난다. ‘피해’의 ‘피(被)’에 이미 ‘당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① 형부터 먼저 해라.
- ② 채훈이는 오로지 빵만 좋아한다.
- ③ 발연자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편다.
- ④ 그는 예의가 바를 뿐더러 무척 부지런하다.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1)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30**) **중의적인 문장 완벽 정리** >

- ① 형부터 먼저 해라. (O)
 - ◆ ‘부터’는 ‘first’라는 의미의 ‘먼저’가 포함되어 있어 의미의 중복이 나타난다.
 - ◆ 부터: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뒤에는 끝을 나타내는 ‘까지’가 와서 짝을 이룬다.
 - ◆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 ② 채훈이는 오로지 빵만 좋아한다. (O)
 - ◆ ‘오로지’와 ‘만’은 ‘only’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의미의 중복이 나타난다.
 - ◆ 오로지: 오직 한 방향으로. 또는 다른 것이 없이 오직.
 - ◆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③ 발연자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편다. (O)
 - ◆ ‘각각’에는 ‘개개’라는 의미의 ‘마다’가 포함되어 의미의 중복이 나타난다.
 - ◆ 마다: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 각각: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

④ 그는 예의가 바를 **뽀뽀러** 무척 부지런하다. (X)

- ◆ ‘뽀뽀라’와 ‘무척’은 의미의 중복이 없는 별개의 단어다.
- ◆ -르뽀뽀러: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 무척: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이.

◆ 정답: ④

문 2.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2)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11**) **말하기 (p.190 ~ 197) : p. 190, 193 >**

김 대리: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장: 괜찮아요. 오랜만에 최 대리하고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허허허.

김 대리: 박 부장님은 오늘 못 나오신다고 전해 달라셨어요.

이 부장: 그럼, 우리끼리 출발합시다.

- ①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
- ②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 ③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 ④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한다.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2)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11**) **말하기 (p.190 ~ 197) : p. 190, 193 >**

◆ 공손성의 원리

- * 찬동(칭찬)의 격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최소화하고 칭찬의 표현을 최대화한다.
- * 요령의 격률: 상대방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의 표현을 최대화한다.
- * 관용의 격률: 자신에 대한 혜택은 최소화하고 부담의 표현을 최대화한다.
- * 겸양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난의 표현을 최대화한다.

①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 (동이의 격률)

②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O) (요령의 격률)

- ◆ 김 대리가 늦었지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최 대리하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여 공손의 요령을 보여준다.

③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관용의 격률)

④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한다. (찬동의 격률)

◆ 정답: ②

문 3.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글의 내용으로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3)

- ①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의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청소년들에게 성인 광고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건을 예로 제시한다.
- ②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사안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 ③ 사회성 결여, 의사소통 장애, 집중력 저하 등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들을 열거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 ④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할당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임을 지적한다.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3)**

①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의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청소년들에게 성인 광고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건을 예로 제시한다. (X)

◆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과 '개인 정보 유출'은 무관하여 글의 내용으로 포함하기에 무리가 있다.

②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사안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O)

◆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통계'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에 대한 글에 포함되어도 좋은 내용이다.

③ 사회성 결여, 의사소통 장애, 집중력 저하 등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들을 열거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O)

◆ '사회성 결여, 의사소통 장애, 집중력 저하 등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에 대한 글에 포함되어도 좋은 내용이다.

④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할당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임을 지적한다. (O)

◆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할당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임'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글에 포함되어도 좋은 내용이다. ◆ 정답: ①

문 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4)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23) 올바른 국어 어법 (p.280 ~ 322) p. 237, 290, 291, 349, 439, 312, 325, 293, 294, 295, 298, 306, 315 >**

- 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 ② 물품 대금은 나중에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결재된다.
- ③ 예산을 대충 견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세요.
- ④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름합니다.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23) 올바른 국어 어법 (p.280 ~ 322) p. 237, 290, 291, 349,
439, 312, 325, 293, 294, 295, 298, 306, 315 >

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O)

◆ 하다 + 노라고 = 하노라고

◆ 노라고: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② 물품 대금은 나중에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결제된다. (X) → 결제된다.

◆ 결제(決済):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 카드 결제 / 현금 결제 >

● 결재(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재가(裁可)'로 순화. ☺영보이 암기tip) < 자재과 부장 - 결재 >

③ 예산을 대충 견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세요. (X) → 겉잡아서

◆ 겉잡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 겉잡을 수 없는 사태 / 불길이 겉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다.

●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 - 겉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

■ 겉잡다: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 겉잡아도 일주일은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다 하라고 하니 일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어떨지는 말 안 해도 뻔하지. / 예산을 대충 겉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시오.

④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름합니다. (X) → 같음합니다.

◆ 같음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같음합니다. >

☺영보이 암기tip) 검은색 색종이가 없으니 갈색으로 같음하자. < 갈색 - 같음 >

● 가늠 -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봄. < 매사가 다 그렇듯이 떡 반죽도 가늠을 알맞게 해야 송편을 빚기가 좋다. >

- 사물을 어렵잡아 헤아림. < 그 건물의 높이가 가늠이 안 된다. / 막연한 가늠으로 사업을 하다가는 실패하기 쉽다. >

■ 가름 -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는 일. < 차림새만 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가름이 되지 않는다. >

-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는 일. < 이기고 지는 것은 대개 외발 싸움에서 가름이 났다. >

◆ 정답: ①

문 5.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5)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p.555 ~ 586) 129, 557 >**

네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 가는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지요. 서로 짠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순번이 된 집에서 물 길어 간 후에야 파리 끈 입에 물고 살짝 들어서시는 어머니나 물지게 진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었구요. 넉넉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던 그 샘가 미나리밭에서는 미나리가 푸르고 앙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혹은 풍겼지요.

- 함민복, 그 샘 -

- ① '샘'을 매개로 공동체의 삶을 표현했다.
- ② 과거 시제로 회상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 ③ 공감각적 이미지로 이웃 간의 배려를 표현했다.
- ④ 구어체로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표현했다.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5)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p.555 ~ 586) 129, 557 >**

- ① '샘'을 매개로 공동체의 삶을 표현했다. (O)
 - ◆ '넉넉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던 그 샘'로 보아 '샘'을 매개로 공동체의 삶을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 ② 과거 시제로 회상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O)
 - ◆ '네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 들을 수 있었지요. ~ 먹었지요. ~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 양보되기도 했었구요. ~ 풍겼지요.'로 보아 과거 시제로 회상의 분위기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③ 공감각적 이미지로 이웃 간의 배려를 표현했다. (X)

- ◆ '서로 짠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었구요.'로 보아 이웃 간의 배려를 느낄 수 있으나 공감각적 이미지는 알 수 없다.
- ◆ 공감각(共感覺):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일. 또는 그렇게 일으켜진 감각. 소리를 들으면 빛깔이 느껴지는 것 따위이다. 다시 말해서 공감각적 표현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으로 전이(轉移)되는 것을 말한다.
- ◆ '미나리밭에서는 미나리가 푸르고'로 보아 시각적 이미지를, '앙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혹은 풍겼지요.'로 보아 후각적 이미지를 알 수 있으나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으로 전이(轉移)되는 공감각적 이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구어체로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표현했다. (O)
 - ◆ '~ 들을 수 있었지요. ~ 먹었지요. ~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 양보되기도 했었구요. ~ 풍겼지요.'로 보아 구어체로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 ◆ 구어체: 글에서 쓰는 말투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 ◆ **정답: ③**

문 6.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6)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생명체는 먹이가 그들에게 헤엄쳐 오게 만들고, 고등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포획 대상을 추적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변형시킨다. 이러한 생존 방식을 흔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 개변(改變)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 환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다. 이는 인간의 세 가지 충동 - 사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 - 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은 순응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도 생명체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다.

- ①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왔다.
- ②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 ③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
- ④ 인간은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6)**

①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왔다. (X)

◆ ‘환경을 변형시킨다. 이러한 생존 방식을 흔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 개변(改變)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 잘 살기 위한 노력은 순응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도 생명체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다.’로 보아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위 글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왔다가보다는 환경을 변형시키는 게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②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X)

◆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 환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다.’로 보아 삶의 기술은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 (O)

◆ ‘환경을 변형시킨다. ~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 개변(改變)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로 보아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인간은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 (X)

◆ ‘인간은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가 틀린 말은 아니나 이 글의 주장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장이라 하려면 글의 내용의 중심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글의 중심내용인 ‘환경을 능동적 변형’이라는 문장이 없어 주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정답: ③**

문 7. 밑줄 친 부분의 활용형이 옳지 않은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7)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39) 한글 맞춤법(사이시옷, 준말 + 기타) (p.522 ~ 547) p. 438, 535 >

- ① 집에 오면 그는 항상 사랑채에 머물었다.
- ② 나는 고향 집에 한 사나흘 머무르면서 설 생각이다.
- ③ 일에 서툰 것은 연습이 부족한 까닭이다.
- ④ 그는 외국어가 서투르므로 해외 출장을 꺼린다.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7)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39) 한글 맞춤법(사이시옷, 준말 + 기타) (p.522 ~ 547) p. 438, 535 >

① 집에 오면 그는 항상 사랑채에 머물었다. (X) → 머물렀다.

◆ 머무르다 - 머물러 - 머무르니 - 머무를 - 머물

☺영보이 암기tip) < 물 - 무르 - 물러 >

◆ ‘르’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ㄹ’이 탈락하면서 ‘르’이 덧붙여지는 활용이다. < 예: 서두르다 - 서둘러 / 가파르다 - 가팔라 / 머무르다 - 머물러 >

② 나는 고향 집에 한 사나흘 머무르면서 설 생각이다.(O)

◆ 머무르다 - 머물러 - 머무르니 - 머무를 - 머물

③ 일에 서툰 것은 연습이 부족한 까닭이다.(O)

◆ 서투르다 - 서투른 - 서투르니 / 서툴다 - 서툰 - 서투니

◆ ‘르’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ㄹ’이 탈락하면서 ‘르’이 덧붙여지는 활용이다. < 예: 서두르다 - 서둘러 / 가파르다 - 가팔라 / 머무르다 - 머물러 >

④ 그는 외국어가 서투르므로 해외 출장을 꺼린다.(O)

◆ 서투르다 - 서투른 - 서투르니 / 서툴다 - 서툰 - 서투니

cf. 서투르다(poor, unskilled, **clumsy**, unaccustomed to, unfamiliar with)

◆ 정답: ①

문 8. 다음에 서술된 A사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성어는? (2020지방직 제1회 문8)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 '고사성어 편' 초대박 적중: p. 86, 94, 95, 131, 136, 137, 315, 324, 325, 6, 14, 15, 45, 175, 303, 344, 33, 38, 39, 54, 58, 59, 65, 70, 71, 103, 108, 109, 116, 121, 124, 125, 132, 136, 137, 209, 218, 219)

최근 출시된 A사의 신제품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신제품의 성공으로 A사는 B 사에게 내주었던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 ① 兔死狗烹 ② 捲土重來 ③ 手不釋卷 ④ 我田引水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8)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 '고사성어 편' 초
대박 적중: p. 86, 94, 95, 131, 136, 137, 315, 324, 325, 6, 14, 15, 45,
175, 303, 344, 33, 38, 39, 54, 58, 59, 65, 70, 71, 103, 108, 109, 116,
121, 124, 125, 132, 136, 137, 209, 218, 219)

① 兔死狗烹(토사구팽): 兔(토끼 토) 死(죽을 사) 狗(개 구) 烹(삶을 팡)

a) 의미: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 유의어 < 염량세태, 감탄고토 >

1) 炎涼世態(염량세태): 炎(불꽃 염) 涼(서늘할 량(양)) 世(인간 세) 態(모습 태)

a) 의미: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甘香苦吐(감탄고토): 甘(달 감) 吞(삼킬 탄) 苦(쓸 고) 吐(토할 토)

a) 의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

② 捲土重來(권토중래) (O): 捲(말 권) 土(흙 토) 重(거듭 중) 來(올 래)

◆ 의미: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失敗)하였으나 힘을 회복(回復)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이르는 말.

◆ '이번 신제품의 성공으로 A사는 B사에게 내주었던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로 보아 '권토중래(捲土重來)'가 적절하다.

③ 手不釋卷(수불석권): 手(손 수) 不(아닐 불) 釋(풀 석, 기뻐할 역) 卷(책 권/말 권, 곤룡포 곤)

◆ 의미: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고 늘 글을 읽음.

④ 我田引水(아전인수): 我(나 아) 田(밭 전) 引(끌인) 水(물 수)

◆ 의미: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 유의어 < 견강부회, 영서연설 >

1) 견강부회(牽強附會): 牽(이끌 견/끌 견) 強(강할 강) 附(붙을 부) 會(모일 회)

a) 의미: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2) 郢書燕說(영서연설): 郢(초나라 서울 영) 書(글 서) 燕(제비 연) 說(말씀 설)

a) 의미: 영(郢)나라 사람의 글을 연(燕)나라 사람이 설명(說明)한다는 뜻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끌어대어 도리(道理)에 맞추도록 함.

◆ 정답: ②

문 9.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9)

예술 작품의 복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러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 작품의 특성상 원본 고유의 예술적 속성을 복제본에서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회화는 붓 자국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회화와 달리 사진의 경우, 보통은 ‘그 작품’이라고 지칭되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20세기 위대한 사진작가 빌 브란트가 마음만 먹었다면, 런던에 전시한 인화본의 조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다른 곳에 전시한 것과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진의 경우,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 ① 복제본의 예술적 가치는 원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
- ② 복제 기술 덕분에 예술의 매체적 특성이 비슷해졌다.
- ③ 복제본의 재현적 특질을 변형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 ④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9)

- ① 복제본의 예술적 가치는 원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 (X)
◆ ‘회화는 붓 자국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회화와 달리 사진의 경우, 보통은 ‘그 작품’이라고 지칭되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로 보아 복제본의 예술적 가치는 원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은 주장이 되기에 무리가 있다.
- ② 복제 기술 덕분에 예술의 매체적 특성이 비슷해졌다. (X)
◆ ‘런던에 전시한 인화본의 조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다른 곳에 전시한 것과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진의 경우,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로 보아 오히려 복제기술 덕분에 예술적 매체적 특성이 다양해졌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 ③ 복제본의 재현적 특질을 변형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X)
◆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로 보아 제한적인 게 아니라 다양하고 하는 게 옳다.

④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O)
◆ ‘다른 곳에 전시한 것과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진의 경우,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글을 종합해볼 때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적절하다.

◆ 정답: ④

문 10.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10)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초대박 적중 p. 10, 16, 17, 80, 81, 231, 240, 241 >

- ① 그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직장을 구했다. → 遺棄하고
- ② 휴가철인 7~8월에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가장 많다. → 根絶되는
- ③ 그는 집 앞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찾고 있다. → 投棄하고
- ④ 취직하려면 그녀는 우선 지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다. → 拋棄해야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10)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초대박 적중 p. 10, 16, 17, 80, 81, 231, 240, 241 >

① 그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직장을 구했다. → 遺棄하고 (X)

◆ 遺棄(유기)가 아니라 '拋棄(포기)'가 적절하다

- 1) 버리다: 품었던 생각을 스스로 잇다.
- 2) 遺棄(유기): 遺(남길 유, 따를 수) 棄(버릴 기)

◆ 의미: 내다 버림. 어떤 사람이 그동안 받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3) 拋棄(포기): 拋(던질 포) 棄(버릴 기)

◆ 의미: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림.

② 휴가철인 7~8월에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가장 많다. → 根絶되는 (X)

◆ 根絶(근절)이 아니라 '遺棄(유기)'가 적절하다.

- 1) 버려지다: 직접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사이가 끊어지고 돌봄을 받지 못하다.
- 2) 根絶(근절): 根(뿌리 근) 絶(끊을 절)

◆ 의미: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림.

* 시험에 잘 나오는 어휘: eradicate(근절하다), wipe out(뿌리뽑다), root out(캐내다, 찾아내다: 뿌리째 뽑다, 근절시키다), stamp out(밟아 뭉개다, 불을 끄다, 근절하다), eliminate(몰살시키다, 박멸하다), exterminate(몰살시키다, 박멸하다)

3) 遺棄(유기): 遺(남길 유, 따를 수) 棄(버릴 기)

◆ 의미: 내다 버림. 어떤 사람이 그동안 받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③ 그는 집 앞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찾고 있다. → 投棄하고 (O)

- 1) 버리다: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
- 2) 投棄(투기): 投(던질 투, 머무를 두) 棄(버릴 기)

◆ 의미: 내던져 버림.

④ 취직하려면 그녀는 우선 지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다. → 拋棄해야 (X)

◆ 拋棄(포기)가 아니라 '改善(개선)'이나 '矯正(교정)'이 적절하다.

- 1) 버리다: 못된 성격이나 버릇 따위를 떼어 없애다.
 2) 改善(개선): 改(고칠 개) 善(착할 선)
 ◆ 의미: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
 3) 矯正(교정): 矯(바로잡을 교) 正(바를 정/정월 정)
 ◆ 의미: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 ◆ 정답: ③

문 11. 다음 글의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11)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꼽혀지고 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버튼만 누르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은 1990년 일본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국내에선 1990년대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게임에서 실행했던 일을 현실에서 저지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 듯 관계를 쉽게 끊기도 한다. 리셋 증후군은 행동 양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진단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실과 인터넷 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①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어법에 맞게 ㉠을 ‘꼽고’로 수정한다.
 ② 글의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은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긴다.
 ③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은 ‘칼로 무를 자르듯’으로 수정한다.
 ④ 앞 문장과 연결을 고려하여 ㉣을 ‘그러므로’로 수정한다.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11)

- ①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어법에 맞게 ㉠을 ‘꼽고’로 수정한다. (X) → 꼽히고
 ◆ ‘꼽히다’는 ‘꼽다’의 피동사로 ‘꼽히다’가 옳은 표현이다. ‘꼽혀지다’는 이중 피동으로 틀린 표현이다.
 ◆ ‘꼽다’는 타동사로 목적어가 필요하다. ‘꼽다’를 굳이 쓰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문장을 고쳐야 한다. 그 연구원은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리셋 증후군을(목적어) 꼽고 있다.
- ② 글의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은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긴다.(O)
 ◆ 리셋 증후군의 발생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기는 게 적절하다.
- ③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은 ‘칼로 무를 자르듯’으로 수정한다.(O)
 ◆ ‘관계를 쉽게 끊기도 한다.’로 보아 ‘easy’와 관계된 속담이 적절하므로 ‘칼로 무를 자르듯’으로 수정하는 게 옳다.
 ◆ 막다른 골목으로 몰 듯: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로 몰듯

④ 앞 문장과 연결을 고려하여 ㉠을 '그러므로'로 수정한다.(0)

- ◆ ㉠ 앞 문장은 뒷 문장의 근거가 되므로 '그러므로'가 적절하다.
- ◆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 ◆ 근거: 리셋 증후군은 행동 양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진단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 능력을 길러야 한다.

◆ 정답: ①

문 12. 다음 글에서 의인화하고 있는 사물은? (2020지방직 제1회 문12)

姓은 楮이요, 이름은 白이요, 字는 無玷이다. 회계 사람이고, 한나라 중상시 상방령 채륜의 후손이다. 태어날 때 난초탕에 목욕하여 흰 구슬을 희롱하고 흰 띠로 꾸렸으므로 빛이 새하얗다. … (중략) … 성질이 본시 정결하여 武人은 좋아하지 않고 文士와 더불어 노니는데, 毛學士가 그 벗으로 매양 친하게 어울려서 비록 그 얼굴에 점을 찍어 더럽혀도 씻지 않았다.

- ① 대나무 ② 백옥 ③ 엽전 ④ 종이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12)

- ◆ '楮, 빛이 새하얗다, 文士와 더불어 노니는데'로 보아 '종이'가 정답이다.
- ◆ 楮(닥나무 저, 종이 저)
- ◆ 無玷(무점): 無(없을 무) 玷(이지러질 점, 더럽힐 점)
- ◆ 위 작품은 이첨의 <저생전(楮生傳)>이다.
- ◆ 이첨의 <저생전(楮生傳)>: 고려 말기에 이첨(李詹)이 지은 가전체 소설. 종이를 의인화하여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동문선》에 실려 있다.
- ◆ 가전체 소설: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傳記)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 고려 중기 이후에 성행하였으며, 임춘(林椿)의 <국순전>, <공방전>이나 이규보(李奎報)의 <국선생전>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 ◆ 동문선(東文選): 신라 때부터 조선 숙종 때까지의 시문(詩文)을 모아 엮은 책. 조선 성종 9년(1478)에 서거정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정편(正編) 130권과 중종 때 신용개, 숙종 때 송상기 등이 편찬한 속편(續編) 21권이 있다. 우리나라 한문학의 총결산이라 할 만하다. 154권 45책.

◆ 정답: ④ 종이

문 13. 다음 보도 기사별 마무리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13)

보도 기사	마무리 표현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	㉠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	㉡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전 소식	㉢
연예 스캔들 소식	㉣

- ① ㉠: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② ㉡: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③ ㉢: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④ ㉣: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13)**

① ㉠: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O)

◆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에 관한 마무리 표현은 ‘해결’이 적절하므로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는 옳바르다.

② ㉡: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X)

◆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에 대한 마무리 표현은 ‘좀 더 지켜봅시다.’ 등의 표현이 적절하지, ‘새삼’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다.

◆ 새삼: 이전의 느낌이나 감정이 다시금 새롭게. 하지 않던 일을 새로 하여 갑작스러운 느낌이 들게.

③ ㉢: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O)

◆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전 소식’은 아직 모르므로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는 적절하다.

◆ 귀추(歸趨): 일이 되어 가는 형편.

④ ㉣: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O)

◆ ‘연예 스캔들 소식’은 호사가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이슈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는 적절하다.

◆ 호사가: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의 일에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 입방아: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

◆ **정답: ②**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14)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2) 고전문학 p. 21** >

말뚝이: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맏이는 생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생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생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대사는 일절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잘량 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 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고.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 작자 미상, 봉산탈춤 에서 -

- ① 양반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뚝이에게 야단쳤군.
- ② 생님과 서방님이 부채와 장죽을 들고 춤을 추며 등장했군.
- ③ 말뚝이가 굿거리장단에 맞춰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았군.
- ④ 도련님이 방정맞게 굴면서 생님과 서방님의 얼굴을 부채로 때렸군.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14)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2) 고전문학 p. 21** >

말뚝이: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맏이는 생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생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생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대사는 일절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 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 작자 미상, 봉산탈춤 에서 -

① 양반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뚝이에게 야단쳤군. (O)

◆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야아, 이놈, 뭐야아!’로 보아 양반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뚝이에게 야단쳤다는 말은 적절하다.

② 샌님과 서방님이 부채와 장죽을 들고 춤을 추며 등장했군. (O)

◆ ‘말뚝이 뒤를 따라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로 보아 샌님과 서방님이 부채와 장죽을 들고 춤을 추며 등장했다는 말은 적절하다.

③ 말뚝이가 긋거리장단에 맞춰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았군. (X)

◆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으로 보아 긋거리장단에 맞춰 양반을 인도할 뿐이지, 긋거리장단에 맞춰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도령님이 방정맞게 굴면서 샌님과 서방님의 얼굴을 부채로 때렸군. (O)

◆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로 보아 도령님이 방정맞게 굴면서 샌님과 서방님의 얼굴을 부채로 때렸다는 말은 적절하다.

◆ 정답: ③

문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15)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9) 띄어쓰기 (p.151 ~ 179) p. 152, 153, 155, 157, 159, 163, 164, 165, 167, 168** >

① 해도해도 너무한다.

② 빠른 시일 내 지원해 줄 것이다.

③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데나 쓴다.

④ 소비 절약을 호소하는 정공법 밖에 달리 도리는 없다.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15)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
 중 ☺영보이 포인트 #9) 띄어쓰기 (p.151 ~ 179) p. 152, 153, 155, 157, 159,
 163, 164, 165, 167, 168 >

① 해도해도 너무한다. (X) → 해도V해도

◆ 해도해도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해도'를 연달아 쓴 것이므로 둘 사이는 띄어 써야 한다.

② 빠른 시일 내 지원해 줄 것이다. (O)

◆ 내: (의존 명사) 일정한 범위의 안.

◆ '일정한 범위의 안'을 의미하는 '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③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데나 쓴다. (X) → 대접하는V데나

◆ '데'가 '경우'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 데: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의존 명사),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의존 명사),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말(의존 명사)

④ 소비 절약을 호소하는 정공법 밖에 달리 도리는 없다. (X) → 정공법밖에

◆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밖에'가 오면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밖에: 「조사」(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조사는 붙여 쓴다.

◆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 가지고 있는 돈이 천 원밖에 없었다. / 떨어져 봤자 조금 다치기밖에 더하겠니?

그밖에 더 논의할 사항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X) → 그V밖에

● 밖 -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

● 그녀는 기대V밖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 합격자는 너V밖에도 여러 명이 있다. / 내 능력V밖에의 일이다. / 예상V밖에로 일이 복잡해졌다.

< cf. -르밖에: '-르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선생님이 시키는데 할밖에./어른들이 다 가시니 나도 갈밖에./자식들이 속을 씩이니 어머니가 저렇게 늠으실밖에. >

◆ 정답: ②

문 16. 다음 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16)

시(市)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는 항만의 끝에 이르러서야 잘려졌다. 석탄을 싣고 온 화차(貨車)는 자칫 바다에 빠뜨릴 듯한 머리를 위태롭게 사리며 깜짝 놀라 멧고 그 서슬에 밀구멍으로 주르르 석탄 가루를 흘려보냈다.

집에 가 봐야 노루꼬리만큼 짧다는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둔 채 떼를 지어 선창을 지나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제분 공장 벌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명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명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울음이 흩어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검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돌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흔들면서 화차가 달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잦싼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든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찌뽕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에서 -

- ①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 ② 항만 북쪽에는 제분 공장이 있고, 철도 건너에는 저탄장이 있다.
- ③ 선로 주변에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철조망이 있다.
- ④ 석탄을 먹을거리와 바꿀 수 있는 간이음식점이 있다.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16)

- ①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O)

◆ ‘시(市)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는 항만의 끝에 이르러서야 잘려졌다.’로 보아 적절하다.

- ② 항만 북쪽에는 제분 공장이 있고, 철도 건너에는 저탄장이 있다. (O)

◆ 다섯 번째 줄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열일곱 번째 줄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로 보아 적절하다.

- ③ 선로 주변에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철조망이 있다. (X)

◆ 열아홉 번째 줄 ‘우리는 대개 신발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잦싼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든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로 보아 아이들은 낮은 철조망을 쉽게 넘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석탄을 먹을거리와 바꿀 수 있는 간이음식점이 있다. (O)

◆ 끝부분 ‘선창의 간이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찌뽕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로 보아 적절하다.

◆ 정답: ③

문 19.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19)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 한다.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심리 경향이다.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그러한 정보는 어떤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그러한 정보는 우리를 추론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해 준다. 즉 추론의 결과 때문에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 첫째는 생각하지 않게 하고, 둘째는 행동하지 않게 함을 말한다.

일례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이 판단의 과정을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도 촬영했다. 그 결과,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뇌 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을 접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뇌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①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② 사람에게서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
- ③ 사람에게서는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19)**

- ①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O)
 ◆ 첫 번째 줄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 ~ 첫째는 생각하지 않게 하고, 둘째는 행동하지 않게 함'으로 보아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② 사람에게서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O)
 ◆ 아홉 번째 줄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로 보아 사람에게서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③ 사람에게서는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O)
 ◆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을 접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뇌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로 보아 사람에게서는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X)
 ◆ **확증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인데, 이 글을 아무리 봐도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은 추론할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견해와 일치하지 않은 정보를 접했을 때 마음의 휴식이야니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 추론이라 할 수 있다.

◆ 정답: ④

문 20. 밑줄 친 부분에서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20지방직 제1회 문20)

금와왕이 이상히 여겨 유화를 방 안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안을 비추는데 ㉠몸을 피하면 다시 쫓아와서 비추었다. 이로 해서 태기가 있어 알[卵] 하나를 낳으니, 크기가 닳 되돌이만 했다. 왕이 그것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주게 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다시 길에 ㉡내다 버리게 했더니 소와 말이 피해서 가고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들이 덮어 주었다. 왕이 쪼개 보려고 했으나 아무리 해도 쪼개지지 않아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가 이 알을 천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더니 한 아이가 ㉢겹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겨우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이미 기골이 뛰어나서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나라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므로 그 아이를 ‘주몽’이라 했다.

금와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어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재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일찍 ㉤없애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니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적게 먹여서 여위게 기르고, 둔한 말을 ㉥잘 먹여서 살찌게 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정답 및 해설 (2020지방직 제1회 문20)

㉠ 유화: 유화를 방 안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안을 비추는데 (유화가) ㉠몸을 피하면

㉡ 금와왕: 왕이 그것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주게 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왕이) (신하에게) 다시 길에 ㉡내다 버리게 했더니

㉢ 주몽: 한 아이가 ㉢겹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 이미 기골이 뛰어나서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 금와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어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재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 주체를 정할 수 없음: 나라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을 뿐 그것으로 이 글의 주인공인 주몽이라 지칭하는데 무리가 있다.

㉤ 맏아들 대소 또는 금와왕 또는 우리 둘 다: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제가(대소)/금와왕께서/우리가(대소와 금와왕) 일찍 ㉤없애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 주몽: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적게 먹여서 여위게 기르고, 둔한 말을 ㉥잘 먹여서 살찌게 했다.

③ ㉢, ㉥ : 행위의 주체는 ‘주몽’

㉢ 주몽: 한 아이가 ㉢겹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 이미 기골이 뛰어나서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 금와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어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재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 주몽: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적게 먹여서 여위게 기르고, 둔한 말을 ㉮잘 먹여
서 살찌게 했다.

◆ 정답: ③

- 영보이 저서 -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편”](#)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고사성어 편”](#)
-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합격노트”](#)
- ◆ [2020영보이 공무원 고사성어\(故事成語\) “합격노트”](#)
 - ㄱ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ㄴ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 2021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21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21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

2020지방직 제1회 9급 국어 B책형 재미있고 아주 자세한 해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